

지금 청소년은 아노미 상태

# 이제 어른들이 나서야 할 때



이제 어른들부터 성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 때다. 어린말의 청춘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이방에 올바른 성문화성착을 위해 어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자.

경향신문 1999년 8월자 기사에 의하면 한 여고생이 십대들의 성 토론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 토론방은 통신공간「청소년세상」에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는 누구나 자신의 성적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어른들은 모르는 청소년들만의 공간이다. 그 학생은 중학교 2학년 때 한 인터넷 게시판에 성과 관련해 띄운 또래의 글들이 제각각일 뿐 아니라, 주변에 떠도는 낭설을 사실로 믿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10대들만의 성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고 한다.

정확한 성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도서관을 뒤지기도 하고 선배 대학생 언니 오빠들의 도움을 얻어 성교육에 관련된 책을 입수하여 이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고 1998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글을 올리기 시작, 1998년 12월에는 게시판을 마련해서 10대들이 성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는데 결과는 놀라울 정도였다. 1999년 8월 현재 600여건의 고민이 쏟아졌고 접속건수만 1만 여건이 넘었다고 한다.

## >> 노출된 성적인 환경에 혼란스런 청소년

이 기사를 접하면서 한 소녀의 기특한 생각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한편 우리사회의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성문제에 대한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은 예전에 비해 성적인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바른 성 지식을 습득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동서의 상반된 성문화

가 혼재하고 있어서 더욱 혼란에 빠진다. 그 결과 무심코 행한 행동들이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일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이다.

도처에서 사랑타령이 넘쳐나고 있다. 사랑이 인생의 전부라고 외쳐대는 대중가요를 들으면서 십대들은 이성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고, 십대의 구매력에 의존하는 상품광고나 뮤직비디오는 물론 TV드라마나 영화까지 청소년들의 성적 호기심을 부추기는 선정적인 장면이나 표현이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또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업주의적이고 폭력적인 저급한 서구의 성문화가 범람함으로써 성적 문란과 방종이 보편적인 성문화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다육 문제가 되는 것은 가정이나 학교 그 어느 곳에서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적 주체성을 확립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성 문제에 대한 어른들의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실제로 아이들은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이미 O양의 비디오를 보면서 은밀한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데 어른들은 우리집 아이는 그런 아이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성 문제에 대해 애써 외면하려드는 것이다.

성교육은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타인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자라야 한다. 그리고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성장기의 고민들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나름대로 고민도 하다가 또 래집단이나 선배들의 조언을 듣게 되는데 그들 역시 주변에 떠도는 왜곡된 성지식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한 성 정체성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들은 성에 대한 질문이나 대화에 암묵적으로 금기시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성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에도 부모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없다. 그들은 나름대로 고민도 하다가 또래집단이나 선배들의 조언을 듣게 되는데 그들 역시 주변에 떠도는 왜곡된 성지식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한 성적정체성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학교에서도 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데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아이들은 성 관계 자체에 대한 지식을 원하는데 학교에서는 임신과 출산, 피임 등과 같은 보건학 수준의 강의에 그치고 있다.

또 일년에 6시간 내외로 실시되는 성교육이 매우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강당에 수백 명씩 붙여놓고 강사 1인의 주입식 강의는 아이들에게겐 지루하고 따분한, 강제된 노력에 불과하다.

>> 성적정체성 확립 위한 솔직한 어른들의 말. <<<  
결론적으로 말해 청소년의 성 문제는 성 지식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교육이 부재한 상태에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적인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는 데서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에 의하면 한 아버지가 타락하는 성문화, 점점 회박해져 가는 정조관 등 세기말 혼탁한 사회풍토를 염려한 나머지 겨우 4.5살 난 두 딸을 정혼시

키기 위해 인터넷에 공개정혼 광고를 했다고 한다. 또한 이름 지지하는 네티즌들은 '딸자식을 둔 아버지가 큰 용기를 냈다', '점점 회박해져가는 순결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대안' 이라고 찬사를 보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청소년의 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사회에서 성혼자가 있는 여성은 혼탁한(?) 성문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우리사회의 성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 없이 성의 안전지대를 형성되기 어렵고 또한 개개인이 자신의 성적 자유를 단각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고서는 개개인의 성적 자율성이 보장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제 어른들부터 성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 때다. 성에 대한 고민을 자녀와 함께 이야기하고 자신의 경험도 솔직히 드러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린 자녀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책임있는 성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다. 어린딸의 정혼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이땅에 올바른 성문화정착을 위해 어른들이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고민하자. 그리고 어른들 스스로 아무 거리낌 없이 러브호텔을 드나들거나, 딸처럼 어린 소녀의 성을 돈으로 매수하는 부끄러운 행위를 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그렇게 될 때 아이들도 성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갖게될 것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바른 어른으로 성장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